



역사적 실체로서의 단군

저자 (Authors)	노태돈
출처 (Source)	한국사 시민강좌 27 , 2000.8, 1-20(20 pages)
발행처 (Publisher)	일조각 ILCHOKAK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105297
APA Style	노태돈 (2000). 역사적 실체로서의 단군. 한국사 시민강좌, 27, 1-2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1/09 15:4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특집 — 단군, 그는 누구인가

역사적 실체로서의 단군

노 태 돈

- | | |
|-----------------------|---------------------|
| 1. 머리 말 | 4. 고조선의 건국연대 |
| 2. 단군신화는 고조선 때의 산물인가? | 5. 고조선의 강역과 그 국가 형태 |
| 3. ‘단군’은 이름인가, 칭호인가? | 6. 맺 음 말 |

1. 머리 말

작년 이래로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또다시 ‘단군’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 나왔다. 갈등은 지상을 통한 의견 개진과 논쟁의 차원을 넘어, 집단적인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금년 들어서는 총선과 남북정상회담 등 작금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주요 문제에 가려져 세인의 이목에서 잠시 멀어진 듯하나, 갈등은 여전히 내연하고 있다. 이번에는 특히 종교단체가 논쟁의 주된 당사자로 깊숙히 개입하고 있어, 자칫 그 갈등의 파장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한편 남북한 학계 간에도 1993년 ‘단군릉’ 발굴 이래로 단군과 고조선사에 대한 이해에서, 적어도 표면상에 나타난 면을 보아서는, 현격한 견해의

필자 : 盧泰敦,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저서로는 『한국사를 통해 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풀빛, 1998), 『고구려사 연구』(사계절, 1999)가 있고, 편저로는 『단군과 고조선사』(사계절, 2000)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渤海國의 住民構成과 渤海人의 族源」(『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985) 등 韓國古代史에 관한 것이 많이 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민족적 동질성을 상징하는 단군이 오히려 남한사회 내에서도 남북한 간에서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요소가 되는 면을 보여 딱한 노릇이다. 한편 달리 생각하면 이는 ‘단군’이 그만큼 우리 민족의 가슴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현상으로, 그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충분치 못하였던 데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간 학계에서 행한 단군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행해져왔다. 하나는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서의 단군과 고조선사에 대한 연구이다. 다른 하나는 상징으로서의 단군이 지닌 의미에 대한 이해로, 우리 선인들이 한국사의 각 시기마다에서 단군을 어떻게 인식하여 왔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양 측면에서 행한 단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각종의 단군에 대한 논의를 보면, 양자를 혼동하거나 그 중 한 측면만을 중시함에 따라 많은 문제가 야기됨을 흔히 볼 수 있다. 예컨대 과거 어느 시기의 역사인식을 반영한 단군과 고조선사에 대한 이러저러한 상(像)을 그대로 실재했던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변하는 식의 주장들이 그러한 한 예이다. 그리고 그런 식의 주장이 허구임을 지적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역사에서 민족적 상징으로서 단군이 지녀왔던 의미 자체를 아예 외면하려고 하는 시각이 또 다른 한 예이다. 전자가 비합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 후자는 비역사적인 사고라 하겠다.

요컨대 단군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도모기 위해서는, 사실로서의 단군과 상징으로서의 단군을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우리 역사의 각 시기마다 상징으로서의 단군이 어떤 식으로 재해석되어 왔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단군에 관해 서술해 보고자 하는데, 그간 논란이 되어온 점들을 항목별로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겠다.

2. 단군신화는 고조선 때의 산물인가?

단군에 관한 전승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등 각종 사서에 전해지고 있다. 각 전승 간 구체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중 『삼국유사』의 것이 가장 고졸한 모습을 띠고 있다. 또한 『삼국유사』는 단군에 관한 전승을 담고 있는 책 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 오늘날 일반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단군신화의 내용도 『삼국유사』에 실린 그것이다. 자연 단군에 대한 논급은 일단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신화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에선 먼저 ‘단군신화’라는 표현 자체부터 잠시 논해 보자. 신화라고 하였으니 이미 단군에 관한 전승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반박이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단군신화’라는 말을 거부하고 ‘단군사화(史話)’ 또는 ‘단군실화’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바이다. 이런 시각은 신화를 사실이나 허구냐라는 이분법적인 판단에 집착하여 이해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단군 전승을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고 믿고자 하는 이들도 ‘신화’라는 말 자체에 그렇게 거부감을 강하게 가질 필요가 없다.

신화는 전승된 그대로 다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것은 아니다. 가령 하늘에서 하늘신의 아들이 내려와 지상을 다스렸으며, 그가 꿈이 변하여 사람이 된 여인과 결합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문자 그대로 사실일 수 있겠는가? 만약 그것을 그대로 사실이었다고 믿으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논리적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 된다. 신화는 어디까지나 신성한 또는 신이(神異)한 내용을 담은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전부 허구로 보아야 하나? 실제 조선시대의 많은 유학자들은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볼 때 단군신화의 내용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황당무계하고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하여 전면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이분법적인 단순 논리이다. 신화의 내용이 모두 사실은 아니며, 또한 전면적인 허구만도

아니다. 신화는 이야기이되, 그에는 그 신화가 생성될 당시 사람들의 집단적인 경험과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화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이해를 통해 우리는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다. 곧 신화가 그 내용에서 표방하는 시대에 실제 형성된 것이었다라는 점의 확인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신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 시대의 역사상을 그려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단군신화의 경우에도 이 점이 문제가 되어왔다. 그 점을 먼저 살펴보자.

『삼국유사』는 고조선 멸망 때로부터 무려 천 수백 년이 지난 뒤인 13세기에 저술되었고, 그 이전 시기의 사서에서는 단군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이 단군신화가 과연 고조선 때의 산물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단군신화를 담은 기사 중에는 후대적인 것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요소가 적지 않다는 점도 의문을 더하게 한다. 가령 환인(桓因)은 산스크리트어(梵語)의 ‘Sakrodevenam Indrah’라는 말을 한자로 음역(音譯)한 ‘釋迦提桓因陀羅’에서 그 어원을 찾아볼 수 있다. ‘Sakrodevenam Indrah’는 원래 고대 인도의 신화를 모은 Rig-veda에서 나오는 비를 뿌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신인데, 뒤에 불교 신앙 체계에 수용되어 수미산 도리천(瀟利天)에 거주하며 사방을 진호하고 선악(善惡)을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4세기이다. 자연 단군신화는 빨라도 그 이후에 성립된 것이라는 추정이 일단 가능하다. 이 밖에 단군신화에는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 등의 도교적 용어도 적지 않게 보인다. 이 역시 단군신화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기되었다. 그래서 단군신화는 고려 후기 몽고에 대한 항쟁을 벌이던 시기에,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데는 『삼국유사』 이전 시기에 만들어진 자료에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그것도 이른 시기의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 면에서 주목을 받아왔던 것이 중국의 산동성 가상현(嘉祥縣) 무씨(武氏) 집안의 사당에 새겨진 화상석 그림이다. 이 그림

의 일부가(後石室 3石 3層의 그림) 단군신화의 내용과 흡사하며, 사당에 쓰여진 명문이 기원후 147년의 것이므로 그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그려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¹⁾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단군신화는 이미 기원전부터 있어 왔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산동성 지역이 상고 시기에 '동이족'의 거주지였다는 사실과 결부되어 이 주장은 크게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문제의 화상석 그림은 단군신화와 무관한 것으로서, 중국 신화에서 나오는 황제(黃帝)와 치우(蚩尤) 간의 전투를 그린 것이며, 단군신화를 연상시킨다는 호랑이 입을 통해 사람이 태어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던 장면도 실은 치우의 무리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으로 해석한 견해가 제기되었다.²⁾ 적어도 무씨 사당의 그림을 통해 단군신화가 이른 시기부터 존재하였다고 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러면 단군신화는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보아야 할까?

신화는 생성된 이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다가 어느 시기에 문자로 정착된다. 그때 신화는 문자화된 그 시기의 용어와 표현 양식으로 기술되어진다. 이런 속성을 이해한다면 반드시 표기된 단어가 후대적인 것이라고 하여, 신화 자체가 뒤 시기의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환인이란 단어는 하늘님·천신이란 뜻을 당시 고려시대의 불교적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제석(帝釋) 신앙이 성행하였다. 그 밖에 단군신화에 보이는 불교적·도교적 용어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가령 비를 오게 하는 신(rain-maker)은 농경사회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중시되던 존재였는데, 그것을 고려 후기인들이 도교적 용어를 빌어 우사(雨師)라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단군신화가 후대적인 것인지의 여부는 본질적인 그 신화의 구조 자체에 의거해 판단하여야 한다. 단군신화의 요체는 하늘신의 아들과 웅녀가 결합하여 낳은 이에 의해 고조선이 건국되고

1) 金載元, 『檀君神話의 新研究』, 1947, 47쪽.

2) 金元龍, 「武梁祠 畫像石과 檀君神話에 대한 再考」, 『考古美術』, 146·147합집, 1980.

將英炬·吳文祺, 『漢代武氏墓群石刻研究』, 山東美術出版社, 1995, 81쪽.

그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갔다는 것을 내세운 데에 있다. 즉 고조선왕의 정통성과 존엄성의 근거를 그 신성한 핏줄에서 찾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럴 때 고조선왕은 천손(天孫)으로서 신이한 능력을 지닌 존재가 된다. 즉 단군신화는 고조선 왕실의 신성한 내력을 밝힌 일종의 ‘본풀이’라고 할 수 있다.³⁾ 이런 단군신화는 신왕의 즉위식과 일년 중 일정한 날에 그 시기 나름의 제의(祭儀)나 연회를 통해 재현되었을 것이다. 그 제의에 각지의 족장층들이 참석하였을 것이다. 당시 고조선은 왕의 휘하에 속해 일정한 통제는 받지만 자치력을 강하게 지니고 있던 여러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집단의 장들이 고조선왕이 집전하는 제사 의례에 참가한다는 것은 곧 왕의 권위에 귀속함을 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수도에서 제의가 행해질 때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 상호 교류와 물자 교환 등도 하였을 것이다. 무엇보다 자기 나라와 왕실의 신성함을 내세우는 의례에 참여함은 고조선 주민들의 정서적인 일치감을 함양하는 데 큰 작용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단군신화는 당시 사회에서 일종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녔으며, 정치적·사회적 통합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은 이른 시기의 삼국의 건국신화와 제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⁴⁾

단군신화와 같은 천손강림신화(天孫降臨神話)는 주몽신화, 혁거세신화, 수로왕신화 및 일본 고대신화 등 동북아시아 고대국가들의 건국신화 유형으로 널리 분포한다. 특히 짐승과 결합하여 한 나라의 신성한 시조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고대적인 관념의 반영이며, 고려시대와 같은 후대에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꿈을 조상신으로 여기는 토LEM 신앙은 시베리아에 거주하던 소박한 사회 단계의 족속인 통구스족과 고아시아족들 사이에서 널리 보이며, 특히 흑룡강 유역에 살던 통구스족의 그것과 단

3) 金烈圭, 「韓國神話의 原型」, 『韓國神話와 巫俗研究』 所收, 1977.

4) 노태돈, 「고조선의 변천」, 『檀君 — 그 이해와 자료』, 1994, 43~44쪽.

5) 大林太良, 「朝鮮의 檀君神話와 통구스族의 熊祖神話」, 『敎養學科紀要』, 1974; 『東아시아의 王權神話』, 374~375쪽.

군신화는 흡사한 면을 보인다.⁵⁾ 단군신화는 동북아시아 고대국가들의 건국신화 중 가장 고졸한 면을 지닌다고 할 수 있고, 이는 고조선이 이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한 국가였다는 사실과 연관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단군신화에서는 환웅 등의 천신이 거주하는 신계(神界)와 곰이나 호랑이로 대표되는 자연계, 그리고 인간계가 서로 교류하여 이상적인 조화의 세계를 추구하며, 여러 세계와의 교류에 산(태백산)과 우주목(宇宙木)인 신단수 같은 매개체가 등장하는 등 전형적인 샤머니즘 문화와 세계관을 보여준다. 이 역시 단군신화가 고조선 당대의 산물임을 방증하는 한 근거가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단군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이에 대한 논의는 ‘단군’이란 명칭의 어원을 살피는 데서 시작해 보자.

3. ‘단군’은 이름인가, 칭호인가?

단군의 어원에 대해 이를 호남지역의 말에 무당을 가리키는 ‘당굴’이나 몽고어에서 하늘(天)을 뜻하는 ‘탱그리’와 연관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삼국지』 동이전에서 전하는 한(韓)의 국읍(國邑)에서 하늘신(天神)에 제사지내는 일을 주관하였던 천군(天君)과 그 성격을 함께 하는 면이 있다고 한 견해가 일찍이 제기된 바 있다.⁶⁾ 즉 단군이 하늘신에 제사지내는 제사장적인 성격을 지닌 존재였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수궁이 가는 바이다. 물론 단군이 제사장적인 면만 지녔다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권력자로서의 면모도 지녔음을 단군신화에서는 전한다. 환웅이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신단수 아래에 신시(神市)를 열고 인간사회의 360여 가지의 일들을 주관하였다는 것은 그런 면을 말한다. 이에서 전하는 신시의 시(市)는 후대와 같은 도시나 시장의 의미가 아니다. 상고 시기에 제정(祭政)이 미분리된 상황에서 시(市)는 제의가 행해지던 신성한 곳이며, 그와 함께 시는 처형

6) 崔南善, 「壇君 及其研究」, 『別乾坤』 3의 2, 1928; 『六堂崔南善全集』 2, 1973 재수록.

과 사면의 장소이고, 재화의 재분배 장소로 정무(政務)의 중심처이기도 하였다. 단군신화에서 말하는 신시는 그런 성격의 곳으로서, 정무 기능과 제의 기능이 혼효된 정교(政敎)의 중심처였다고 여겨진다.⁷⁾ 고대의 '시(市)'가 지닌 그런 면은 중국사에서도 확인된다.⁸⁾ 이런 면을 통해 우리들은 단군은 제사장적인 존재인 동시에 정치적 군장으로서의 면모를 지녔던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단군의 '단'이 『삼국유사』에서는 '壇'으로, 『제왕운기』에서는 '檀'으로 기술되어 있다. 양자 중 어느 쪽이 옳은가를 두고, 전자가 옳다고 하는 이들은 단군의 제사장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壇'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檀君'이든 '壇君'이든 간에, 그것은 단군이 지녔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그 글자를 썼던 것이 아니라, '단군'의 음을 새긴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쪽이 옳은가를 논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 단군신화에 전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되어 왔던 것은 단군의 나이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단군은 천오백여 년 재위하다가 아사달에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연인의 수명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에 대해 조선 초기의 권근은 이를 자연인의 수명이라기보다 단군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간 기간을 의미한다고 풀이하였다.

한편 이에 대해 근래에 새로운 해석이 제기되었다. 즉 고조선의 역대 군장을 신성한 시조신의 육화(肉化)로 여겼던 관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그것이다. 그럴 경우 새 군장의 즉위 의례는 시조 왕의 혼령을 받아들이는 절차였고, 군장의 교체가 되풀이되더라도 통치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시조 왕이기 때문에 시조 왕의 재위기간이 인간의 수명을 넘어 장기간에 걸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티베트에서 중생제도를 위한 관세음보살의 현신으로 여기는 달라이라마의 경우, 여러 대를 거

7) 金昌錫, 「한국 고대의 市의 원형과 그 성격 변화」, 『韓國史研究』 99 · 100, 1997.

8) 李成九, 「中國古代的 市의 觀念과 機能」, 『東洋史學研究』 36, 1991.

李成珪, 「中國 古代 抑商政策의 社會사적 背景」, 『古代中國의 理解』 3, 1997.

쳐도 계속 달라이라마라고 칭함을 그 예의 하나로 들었다.⁹⁾

이외에 『규원사화』, 『단군세기』, 『단기고사』 등에서도 제1대 단군에서 제47대 단군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단군의 계보가 기술되어 있다. 이들 책은 20세기에 들어 세상에 알려진 것으로서, 각 책에서 기술된 47명의 단군의 이름이 서로 다르고,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보았을 때 그 저술 연대 또한 20세기임을 알 수 있다.¹⁰⁾ 아무튼 이들 책도 단군을 칭호로 풀이한 예에 속한다.

이상에서 단군이란 말의 어원이나, 단군의 수명에 관한 전승을 풀이한 견해들을 살펴보았다. 단군은 자연인의 이름이라기보다, 고조선 시기에 임금을 나타낸 칭호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런데 이렇게 보았을 때, 단군의 영정이나 근래 논란이 되고 있는 단군상(像)이 문제가 된다. 즉 ‘단군’은 칭호이며 자연인의 이름이 아니라고 볼 경우, 어떻게 단군의 영정이나 상(像)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라는 반론이다. 그러나 영정이나 상을 만들 경우의 단군은 어디까지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고, 그런 뜻에서 그리거나 세워진 것이다. 단군을 자연인의 이름이라고 볼 경우에도, 단군의 영정이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동일한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만큼 단군이 칭호이기 때문에 상을 건립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단군상을 세우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상을 세우고, 그에 대한 설명문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의 초점이다. 그럼 단군이 고조선의 임금의 칭호라면 고조선은 언제 건국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4. 고조선의 건국연대

고조선이 건국한 시기를 절대 연대로 표시한 사례는 두 가지가 있다. 하

9) 서영대, 「단군신화의 의미와 기능」, 『단군과 고조선사』(노태돈 편저, 2000, 150쪽).

10) 조인성, 「재야사서(在野史書) 위서론(僞書論)－단기고사, 환단고기, 규원사화를 중심으로－」, 『단군과 고조선사』 참조.

나는 문헌 기록을 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고학적 발굴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시된 것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를 보면, 『삼국유사』에서는 「고기(古記)」를 인용하여 요(堯) 즉위 50년인 경인(庚寅)년에 단군이 즉위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요 즉위 50년은 경인년이 아니라 정사(丁巳)년이라서,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이에 대한 의문을 주(注)로 표시하였다. 반면에 『동국통감』에서는 고조선의 건국연대를 요 즉위 25년인 무진(戊辰)으로 기술하였다. 근대에 들어 이 무진년 설을 따라 기원전 2333년을 단기 원년으로 삼았다. 물론 요 즉위 25년이 맞느냐, 아니면 50년이 맞느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국사 자체에서 요(堯)의 즉위 원년을 갑진(甲辰, 기원전 2357)으로 산출한 것은 송나라 사람 소강절(召康節; 기원전 1011~1077)에 의해서이며, 이를 사마광(司馬光)이 『자치통감』에서 채용함에 따라 보편화되었다.¹¹⁾ 소강절이 산출한 요의 즉위년 또한 그 절대 연대가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객관적인 근거를 지닌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도무지 중국 사학계에서 요가 즉위한 해를 절대 연대로 정하여 이를 믿는 이는 없는 형편이다. 자연 기원전 2333년이란 단군 즉위 원년의 절대 연대는 사실로서의 의미는 없다. 그런데 『삼국유사』 등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군이 요(堯)와 동시기에 즉위하여 건국하였다고 한 데에 있다. 요는 공자가 인문의 세계를 처음 연 성군으로 높이 추앙하였던 임금이며, 공자 이후 요와 순(舜)의 치세는 이상시대로 널리 인식되어 왔다. 바로 그러한 요 임금과 동시기에 단군이 즉위하여 조선을 건국하였다는 점을,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대등한 시기에 건국된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라는 의식을 나타내고자 하였다는 데에 『삼국유사』 등에서 전하는 고조선 건국연대의 의의가 있는 바이다. 따라서 단군신화에서 전하는 단군의 즉위연대는 그 절대 연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당시인들이 내세우고자 하였던 의식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한편 1993년 평양시 강동군 대박산 기슭에서 ‘단군릉’이 발굴되었고, 무

11) 李基東, 「古朝鮮 問題의 一考察—帝王韻記 所載 古朝鮮紀年에 대한 存疑—」, 『大丘史學』 12 · 13, 1977 참조.

덤 내에 있는 인골을 전자상자성공명법(ESR)에 의해 연대측정을 하니 B.P. 5011±267이 나왔다고 한다. 즉 5천여 년 전에 죽은 사람의 뼈라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삼국유사』 등의 연대와 비근한 것이 된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전자상자성공명법은 현재까지 국제 학계에서 알려진 바로는 만년 단위 이상으로 연대를 측정하는 데 의미를 지니나, 그 이하 단위의 측정에서는 정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설사 그 연대를 긍정한다고 하여도, 이 무덤이 단군묘라고 한 것은 16세기 초반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처음 보인다. 16세기와 5천 년 전 사이에는 4천 5백여 년의 시간적 공백이 있다. 양자를 연결시켜 줄 어떤 고리도 보이지 않는데, 대박산 기슭 옛 무덤의 피장자를 바로 단군이라고 설정하는 것은 무리한 억측에 불과하다.¹²⁾ 그 밖에 핵분열흔적법(Fission Track)과 열형광법(TL) 등 대동강 유역에서 출토된 유물에 북한 학계가 적용한 연대측정 방법은 그 보고 내용이 매우 간략하여 구체적인 측정기구나 보정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어, 이 역시 그대로 수긍키 어려운 바이다.¹³⁾

그런데 북한 학계의 보고에 따르면 ‘단군릉’은 원래의 무덤 양식이 석실 봉토분이며 무덤 내에서 금동관 파편이 출토되었다. 무덤과 금동관의 양식으로 보아서 이 무덤은 고구려 때의 것으로서 빨라야 4세기를 넘지 못한다. 북한 당국은 단군의 무덤을 고구려 때 개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고조선 멸망 이후에도 이 무덤이 단군릉으로 계속 알려져 왔으며, 단군을 고구려 때도 높이 숭앙하여 그 무덤을 특별히 개장하였을 근거나 가능성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고는 다시 건너뛰어 이를 16세기 기록과 연결시켜 역사적 사실화하고, 나아가 이에 맞추어 북한 학계의 기존의 학설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중대한 논리적 결함과 실증적 근거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무덤은 역시 무덤 자체가 말해주는 바대로 고구려 때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12) 이선복, 「최근의 ‘단군릉’ 문제」, 『한국사 시민강좌』 21, 1997.

13) 노태돈, 「북한 학계의 고조선사 연구 동향」, 『단군과 고조선사』.

순리이다.

원시사회에서부터 초기 고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은, 외부로부터 어떤 집단의 이주와 정복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점진적이다. 그런만큼 초기 고대국가의 성립시기를 설정함에 있어 어떤 선을 그어 그 절대 연대를 찾는다는 것은 껍이나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그에 관한 문헌 자료가 전무한 경우에는 더 그러하다. 그런데 국가는 천신이나 조상신 등의 신이 한 힘에 의해 일시에 피조된 것이 아니며, 원시사회에서부터 존재하여 왔던 조직도 아니다. 국가는 일정한 역사 단계에 들어서 형성된 인위적인 조직체이며, 그것은 원시공동체의 해체와 계급분화에 따른 이차적인 사회관계에 토대를 둔 것이다. 자연 국가의 성립에는 일정한 객관적인 조건이 있어야 한다. 즉 사회분화를 가능케 하는 농업경제와 청동기문화의 어느 정도의 성숙이 그것이다. 이는 매우 일반론적인 언급이지만, 고조선국가가 등장할 수 있는 시간적인 상한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와 남만주지역에서 청동기문화가 확산되는 시기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기원전 10세기 전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그보다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동포(銅泡), 즉 단추 모양의 조그마한 청동기들이 확인되어진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청동기의 사용으로는 국가의 형성을 논할 객관적인 요건이 되지 못한다. 무기나 의기와 같은 청동기의 본격적인 사용은 비파형동검문화 단계에서부터였다. 비파형동검문화의 등장 시기는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어, 빨리 보는 이는 기원전 13세기, 늦게 보는 이는 기원전 8세기로 보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한반도와 남만주지역에서 국가의 형성은 빨라도 기원전 10세기 전후를 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원전 10세기 이후 언제 역사상에 고조선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나? 이에 대해서는 조선에 관한 언급을 담은 이른 시기의 문헌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의 춘추시대 제(齊)의 재상인 관중이 저술하였다고 하는 『관자(管子)』라는 책의 경중갑편(輕重甲篇)과 규도편(揆度篇)에서 제와 조선 간의 교역에 관한 언급이 보인다. 이 기사를 그대로 따를 경우, 조선은 기원전 7세기에는 실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관자』는 관중의 이름에 가탁하였지만, 그의 저술로 볼 수 없다. 그 책의 내용을 볼 때, 『관자』는 그 내용의 대부분이 대체로 전국시대(기원전 403~221)의 중·후기에 걸쳐 제나라인들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중 경중편의 편찬 시기에 대해서는 전국시대설, 진한과도기설, 전한(前漢) 문제·경제시기설, 왕망시기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오고 있다.¹⁴⁾

따라서 이 『관자』에 의거하여 기원전 7세기에는 이미 고조선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관자』에 담긴 사상은 전국시대인들의 산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주장을 개진하면서 이용한 자료 자체는 그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전승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될 수 있을 뿐이며, 『관자』의 기사에 의거해 고조선의 구체적인 등장 시기를 규정할 수는 없는 바이다.

다음 조선에 관한 언급의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전국책(戰國策)』의 기록이다. 『전국책』 권 29, 연책(燕策) 1에, 소진(蘇秦)이 연 문후(文侯; 기원전 361~333)에 대해 당시 연의 주변상황을 말하면서 “연의 동쪽에 조선 요동이 있고, 북쪽에는 임호(林胡) 누번(樓煩)이 있으며”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이 연의 변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며, 연의 국세와 대외관계를 논할 때에 주의할 대상이 되었던 세력집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기』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한편 『위략(魏略)』에 의하면, 기원전 323년에 연후가 왕이라 칭하니(易王) 조선후 역시 왕이라 칭하고, 양국 간에 갈등이 있었음을 전한다.

이런 문헌 기록들에 의할 때, 고조선은 늦어도 기원전 4세기 중반에는 북중국 사람들에게 그 실체가 알려졌으며, 연의 동방에 있던 유력한 세력집단으로서 연과 대치 상태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고대 중국인들에게 고조선의 실체가 알려진 시기를 말하는 것일 뿐이다. 고조선 자체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을 수 있다. 그러면 언제

14) 金谷 治, 「管子 輕重篇의 成立」, 『東洋史研究』 43-1, 1984.

부터 고조선이 역사상에 등장하였을까? 이에 관해서는 기록이 전해지지 않으므로 문헌을 통한 추정엔 더 이상 할 수 없는 바이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처럼 한반도와 남만주지역에서 청동기문화가 보급된 시기는, 구체적으로는 비파형동검문화의 성립시기는 기원전 10세기 전후이다. 자연 고조선의 등장시기 또한,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 사이의 어느 시기로 상정해볼 수 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고조선인들이 남긴 유물·유적들을 통해 추론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앞으로 계속적인 조사 발굴과 연구가 요해되는 과제이다. 그러면 이어 고조선의 강역과 그 국가형태에 관해 살펴보자.

5. 고조선의 강역과 그 국가 형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살핌에 있어 먼저 논급해야 할 사항이 고조선의 중심지 문제이다.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해서는 그간 학계에서 세 가지 설이 제기되어 왔다. 먼저 재요령성설은 고조선의 중심지가 시종 지금의 중국 요령성 지역에 있었다는 설이다. 자연 낙랑군 등도 남만주 지역에 있었다고 보았다. 재평양설은 중심지가 지금의 평양 지역에 있었다는 설로서, 낙랑군 조선현도 평양에 설치되었다고 보는 설이다. 한편 이동설은 초기 중심지는 요하 유역에 있었는데, 기원전 3세기 초에 연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그 중심지를 평양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보는 설이다. 이런 세 가지 설의 단초적인 모습은 이미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논고에서 소박한 형태로 제기된 바 있으며, 20세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들이 개진되었다. 현재도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남북한 학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남한 학계에서는 세 가지 설이 모두 제기되어 왔다. 북한 학계에서는 1960년대 초 이래로 재요령성설¹⁵⁾ 정설로 견지되어 왔으나, 1993년 평양에서 ‘단군릉’이 발굴된 이후, 평양이 시종 고조선의 중심

15) 다음은 북한학계의 재요령성설을 대표하는 저서이다.

리지린,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 평양, 1963; 『고조선연구』, 열사람, 서울, 1989.

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⁶⁾ 한편 평양이 계속 수도였으며, 요하 유역에는 고조선의 부수도가 있었는데, 이 부수도를 함락시킨 한나라가 그곳에다 낙랑군을 설치하였고,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고조선의 유민들이 낙랑국을 세웠다고 풀이하는 설이 새롭게 제기되었다.¹⁷⁾ 이는 기존의 재요령설과 신설을 조정하는 시각으로 여겨지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북한 학계의 동향이 주목된다.

사실 한 나라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를 논하는 것은 매우 딱딱한 실증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것은 일차적으로는 이 문제에 관한 사료가 워낙 전해지는 것이 적기 때문이다. 관계된 기록이 매우 적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그 자료에 대한 이해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작용할 여지가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그 면이 연구자들의 역사인식의 차이와 결부될 때, 매우 상이한 역사상을 그려내게 한다. 실제 지난 백여 년 동안 고조선사 연구에서 그러한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늘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말해지고 있는 고조선사와 단군에 대한 상이한 이해도 구체적인 실증적 논거에 의거한 면보다는 각 설의 기저에 깔려 있는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면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그 중심지의 위치에 관한 것을 논급함에서는 실증적인 고찰 외에도, 그간 있었던 고조선사와 단군에 대한 인식의 변천이란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단, 이 글에서는 역사적 사실의 측면에 관해서만 검토해 보겠다.

고조선의 중심지의 위치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보다 구체적인 사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전해지고 있는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를 파악해 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낙랑군 조선현은 위만조선의 왕검성을 함

16) 1993년 이후 북한 학계의 이에 관한 연구 동향의 파악에는 다음 책이 참조가 된다. 이형구 편, 『단군과 고조선』, 살림터, 서울, 1999.

17) 김석형, 「주체의 방법론을 지침으로하여 단군조선의 역사를 체계화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노동신문』, 1994. 10. 6~8.

채희국, 「만 왕조의 멸망과 락랑군에 대하여」, 『노동신문』, 10. 6~8.

리승혁, 「만 왕조의 멸망과 락랑국에 대하여」, 『력사과학』, 1995. 제2기.

락시킨 후 그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위만조선의 왕검성은 단군조선의 수도를 이은 것이기 때문이다.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해 지금의 평양이 틀림없다. 즉 5세기 말 6세기 초 북위의 수도를 방문하였던 고구려 사신이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가 대동강 남쪽에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진·한(秦·漢)대의 만리장성의 유적이 요하 선에 이르러서 확인되었는데, 이는 곧 당시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고 요동군의 소재지였던 양평(襄平)이 요하 하류의 오늘날의 요양임을 뒷받침한다. 요동군이 요하 하류 유역에 있었으니 자연 요동군의 동편에 있었던 낙랑군은 한반도의 북부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평양시의 대동강 남쪽의 토성동 등지에서 발굴되는 중국 한대의 무덤과 유물들은 이곳이 낙랑군의 소재지였음을 분명하게 해주는 바이다. 따라서 고조선의 중심지가 시종 요하 유역에 있었고, 낙랑군도 그곳에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설은 성립키 어렵다.

그 다음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논함에서 비파형동검문화 유적이 분포하는 지역을 곧 고조선의 강역으로 설정하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었으나, 그 뒤 비파형동검문화 유적에 대한 발굴이 증가함에 따라 그렇게는 볼 수 없게 되었다. 비파형동검문화의 분포 범위는 서로는 요서 내륙 깊숙한 곳의 내몽고 일부지역과 북경 북쪽에, 북으로는 장춘·길림 지역까지, 남으로는 한반도 남단의 여수 지역에 이르고 있다. 이들 지역이 모두 하나의 정치세력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분포 범위 내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다시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남만주 지역에선 요하 선을 경계로 그 동쪽과 서쪽지역 간에는 유물·유적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가령 고인돌 무덤은 요하 동쪽에서만 발견된다. 유물의 출토 양상에서도, 미송리형 토기는 요동 지역에서만 출토되고 요서 지역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반면 북중국에서 기원한 삼족기(三足器) 류의 토기는 요동 지역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비파형동검의 여러 양식 중 요동 지역에서는 요서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는 비수식(匕首式)이나 공병식(鏃柄式) 동검은 출토되지 않고 단경식(短莖式)만 보이고 있

다. 이런 면들은 곧 요하를 경계로 그 동·서의 지역이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말해 준다. 문헌 기록과 결부하여 볼 때, 요서 지역의 비파형동검 문화를 영위한 족속은 산융·동호(山戎·東胡)로 추정되며, 요동 지역의 그것은 고조선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면 고조선의 중심지는 시종 평양 일대였을까. 반드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문헌상으로 볼 때, 위에서 말한 바처럼 고조선은 늦어도 기원전 4세기에는 연나라의 동방에 있는 유력한 실체로 북중국에 그 존재가 알려졌고, 요동 지역은 적어도 그 일부는 고조선에 속하였다. 그런데 당시 평양 일대의 비파형동검문화의 유적과 유물은 매우 빈약하고, 반면에 요동 지역에서는 비파형동검문화가 발달하였고 보다 오래된 양식의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한편 평양 일대의 청동기문화는 세형동검문화가 중심이며, 에임 부분이 있는 전형적인 세형동검은 청천강을 경계로 그 이남 지역에서만 출토되며 기원전 3세기 무렵 이후의 것이다. 이런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서북부 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기원전 3세기 초 고조선과 연나라 간의 무력 충돌에서 고조선이 패퇴하여 그 서부지역을 상실하고 청천강을 경계로 한 이후 형성된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할 때,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요하 이동의 어느 곳에 있다가 기원전 3세기 초 연과의 전쟁에서 패퇴한 후 그 중심지를 평양으로 옮긴 것으로 여겨진다.¹⁸⁾

이런 필자의 이동설을 비판하면서 처음부터 평양에 고조선의 중심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론이 제기되었다.¹⁹⁾ 앞으로 이 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찰이 요구되어지는 바이다.

그러면 당시 고조선의 국가 형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역시 당대의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고고학적인 발굴성과와 그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그 모습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전혀 접근이 불가능

18) 노태돈,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3, 1990; 『단군과 고조선사』, 2000에 재수록.

19) 송호정, 『고조선 국가형성 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4.

한 것도 아니다. 단군조선에 이어 등장하였던 위만조선에 대한 약간의 기록이 전하므로 그것을 통해 위만조선의 국가구조를 파악한다면, 이를 토대로 단군조선의 모습을 미루어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만조선은 중국계의 유이민집단들과 고조선계의 토착민집단들이 결합하여 형성한 국가이다. 상(相)을 대표로 하는 집단들과 왕실 직할의 집단이 왕권을 매개로 결속하여 위만조선의 중심체를 구성하였고, 그 외곽에 피복속민집단들이 존재하였다. 상(相)이 소속한 집단은 왕권에 의한 일정한 통제를 받았으나, 여전히 상당한 자치력을 유지하였다. 주요 국정 운영에서 왕의 신하인 동시에 상당한 자치력을 지닌 집단의 수장인 상들이 참여한 회의체가 주요한 기능을 하였다. 그런 가운데서 왕권의 통제력과 상의 자치력 간에는 경우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상이 그 휘하의 민을 이끌고 집단적으로 이탈을 하기도 하였다. 한나라와의 외교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조선상(朝鮮相) 역계경이 휘하 2천 호의 민을 이끌고 남한 지역으로 이탈해 간 것은 구체적인 예이다. 위만조선에 속한 피복속민들도 읍락 단위로 예속되어, 그 집단 내부의 일은 재래의 수장에 의해 자치를 영위하고 중앙에 공납을 바치는 형태로 지배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곧 위만조선의 국가구조는 각급 자치체들을 누층적으로 통합한 형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삼국 초기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의 양상과 유사한 면을 지녀, 부체제(部體制)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다.²⁰⁾ 삼국시대 중기 이후 형성된 성숙한 고대국가를 군현제적인 통치 형태를 취한 중앙집권체제의 영역국가라고 한다면, 위만조선은 초기의 삼국과 함께 초기 고대국가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위만조선의 정치구조를 이렇게 보았을 때, 거슬러 단군조선의 정치구조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고(단군)조선—위만조선—부체제하의 삼국—삼국 후기의 중앙집권적 영역국가로 이어지는

20) 노태돈, 「위만조선의 정치구조」, 『단군과 고조선사』, 2000.

삼국시대의 부체제에 대해서는, 노태돈, 「초기 고대국가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부체제론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17 참조.

한국 고대국가발달사를 상정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위만조선의 국가 형태를 매개로 고(단군)조선의 국가형태를 상정해 보았다. 이런 상정에 큰 과오가 없다면, 고(단군)조선의 국가 형태는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발달된 관료조직을 통해 확장된 영역을 지배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단군조선의 정치체제는 연맹체적인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뒷 시기에 성립하였고, 이미 철기문화와 중국의 선진 문물을 경험한 유 이민집단이 참여한 위만조선의 경우를 보아 능히 미루어 추정할 수 있는 바이다.

연맹체적인 성격을 지녔다면 고조선의 왕, 즉 단군의 휘하에는 고조선을 구성하였던 여러 집단들이 존재하였고, 이들 집단은 상당한 자치력을 지녔을 것이다. 이 집단들을 규합하는 통합력으로는 고조선왕이 지녔을 물리적 통제력뿐 아니라 제의(祭儀)가 주요한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그 제의에서 단군신화를 재현하는 연회가 베풀어졌을 것이고, 고조선 왕인 단군은 제사장으로서 제의를 주재하였을 것이다. 단군이란 칭호의 어원이 ‘달궤(巫, shaman)’, ‘천군(天君)’ 등과 통합은 그런 일면을 나타낸다. 곧 당시 단군은 정치적 군장인 동시에 제사장적인 성격을 지녔던 것이다.

6. 맺음말

이상에서 역사적 실체로서의 단군에 대한 약간의 고찰을 해보았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국 고대국가의 태동기의 모습을 어슴푸레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했듯이 아직도 많은 면이 불분명하고 우리가 아는 단군과 고조선사에 관한 사항은 극히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에 관한 이해의 진전을 위해서는 고대문화 전반에 관한 연구의 확충을 요한다. 특히 만주 지역의 청동기 및 초기 철기문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국 학계의 발굴 보고와 연구 성과에 일차적으로는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1980년대 이래 이 부분에 관한 중국학계의 연구 성과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근

래 이 방면에 관한 중국학계의 동향으로 유의되는 측면은 발해사와 고구려사뿐 아니라 고조선사조차도 중국사의 일부분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자조선의 실재를 인정하고, 위만조선은 중국계 주민에 의해 세워졌으며, 한(漢)의 제후국이었다는 점을 들어 고조선은 고대 중국의 역사권 내에 존재하였던 나라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성격의 고조선과 그것을 이은 한사군의 지역에서 일어난 고구려도 당연히 중국사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를 일부 인사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가볍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닌 듯하다. 무엇보다 이런 주장은 오늘날의 중국 영토 내에서 전개되었던 과거 모든 주민의 역사는 중국사로 보아야 한다는 현대 중국 사학계의 대명제와 결부되는 면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단군과 고조선사에 대한 깊은 관심이 이어져 왔다. 이제 그러한 대중적 관심과 열의를 더 이상 추상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 낭비할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학문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로 집중시켜야 할 시점이다.